지방시장 활성화 추가 대책 내놔야

■ '10·21 건설 부양책' 지역 업계 반응

자금난 해소 도움 … 수도권 치중엔 불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건설업계와 가계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한 주택경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미분양 아파트 및 건설사 소유 택지 매입 등이 대거 포함돼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등 지방 건설업계는 투기지역 해제 등 투자심리 진작의 효과가 수도권에만 국한된 만큼 지방시장을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 자금난 '숨통'=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의 침체 공포를 차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이 사상 최고치인 16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부동산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산업계 전반의 위기로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도 현재 1만8천627가구의 미분양주택이 쌓여있어 지역 경제 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건설업체들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의 공공택지나 보유토지 매입은 부도 직전에 몰린 중소건설사들의 자금난 해갈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이나 공동택지 계약해제 등에는 일단 환영한다"며 "이번 정책으로 광주·전남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등 지방 건설업계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광주·전남 등 지방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불만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고사 직전으로 내몰린 지방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일부 해제, 대출규제 완화 등은 수도권에 편중된 정책이라는 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되레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회복 방안이 미흡한 만큼 향후 지방 수요자들의 관심이 수도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방부제 천연비누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생활 러쉬매장이 가을철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무방부제 핸드메이드 천연비누를 21일 선보였다. 판매가는 100g에 7천400원.

〈광주신세계 제공〉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어떻게 되나

공시가 보다 낮게 신청한 땅부터 매입

공공택지는 1개월이상 연체해야 해약

정부는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최대 9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민간 부동산펀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보이지 않는 지원까지 합치면 지원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토지공사가 직접 사들일 건설업체 보유토지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않으며 기준가격(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90%에서 매각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사들일 계획이다.

공공택지 해약의 경우는 1개월이상 연체된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토지공사뿐 아니라 주택공사가 분양한 택지의 해약도 허용된다.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내에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보증이 사들일 주택은 지방에 소재한 공정률 50%이상의 미분양 주택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 주택업체가 향후 환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준공후 6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또 중소 건설사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브리지론 보증을 시행해 올해 2천억원, 내년 5천억원 등 7천억원이 지원된다. /연합뉴스

■정부 10·21정책 추진 계획

항목	담당기관	일정
▶가계부담 완화 방안		
•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금융위	08.10월~
• 불합리한 처분/축소조건부 대출관련 약정정비	금융위	08.10월~
•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재정부	08.11월~
• 가계대출 부담 완화	금융위	08.11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재정부 국토부	08.11월~
•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확대	재정부 국토부	08.11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방안		
•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재정부 국토부	08.11월~
•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국토부	08.11월~
•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 확대	금융위	08.11월~
•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	금융위	08.10월~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국토부	08.11월~
• 공동택지 제3자 전매허용	국토부	08.12월~
• 공동택지 계약해제 제한적 허용	국토부	08.11월~
•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재정부 국토부	08.11월~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금융위	08.10월~

유가환급금 집행 '바쁘다 바빠'

광주지방국세청 '90분 일 더하기 운동'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이 유가환급금 업무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90분 일 더하기 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주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20일부터 출근시간을 30분 앞당기고, 퇴근시간후 1시간 일을 더 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2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하반기 조사·징수 등 업무 외에도 신뢰도 업무 추진, 연말정산 간소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업무 등이 산적해있는데다 유가환급금(광주청 유가환급 대상인원 140여만명)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관서별로 근무시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銀 대불산단지점 개점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1일 영암군 삼호읍에 광은 대불산단지점을 개점했다. 〈사진〉

대불산단지점은 대불산단과 주변의 관련 산업단지와의 통합마케팅 추진을 통해 각종 지역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산업단지 전용상품인 '광은 하이클러스터론' 등 입주기업에 대한 토털 금융서비스 제공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도 '금융위기 극복' 나섰다

지역 경제단체 전문가 대책위 구성 실물경기 대응책 강구

전남도가 지역 경제단체 등 전문가와 함께 경제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최근의 금융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21일 지역경제관련 단체, 대기업, 금융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전남도 경제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금융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동향 및 대책 ▲실물경기 침체대응을 위한 지역기업간 상생협력 방안 ▲기관·단체·기업 건의사항 수렴 등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구매 상담회 개최와 기업상호간 교차구매 촉진, 지역생산품 공동홍보추진, 특화센터 기업체 지원강화,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등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13가지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또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전남산 친환경 농수산식품의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 중국내 대형마트 입점, 전남 명품관 설치, 무역교류단 파견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원화가치 하락을 활용한 해외관광객 유치대책 등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지역금융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200억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제대책추진협의회에 참석한 단체와 업체들은 도내 발주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지역농산물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목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대형블럭 운송장비인 '트랜스포터' 운행제한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주에 대규모 냉동식품 가공공장 건립

전남도·나주시·한미냉동식품㈜ 투자협약

나주에 대규모 냉동식품 가공공장이 들어선다.

전남도는 21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신정훈 나주시장, 윤화실 한미냉동식품㈜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냉동식품·야채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한미냉동식품㈜은 나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다시면 일대 부지 1만㎡에 105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0년까지 만두와 야채가공공장을 준공, 양파와 마늘·대파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품을 매달 518t씩 가공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나주에 제조공장을 건립함으로써 값싸고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현지에서 직접 가공 생산, 원가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해외 판매망도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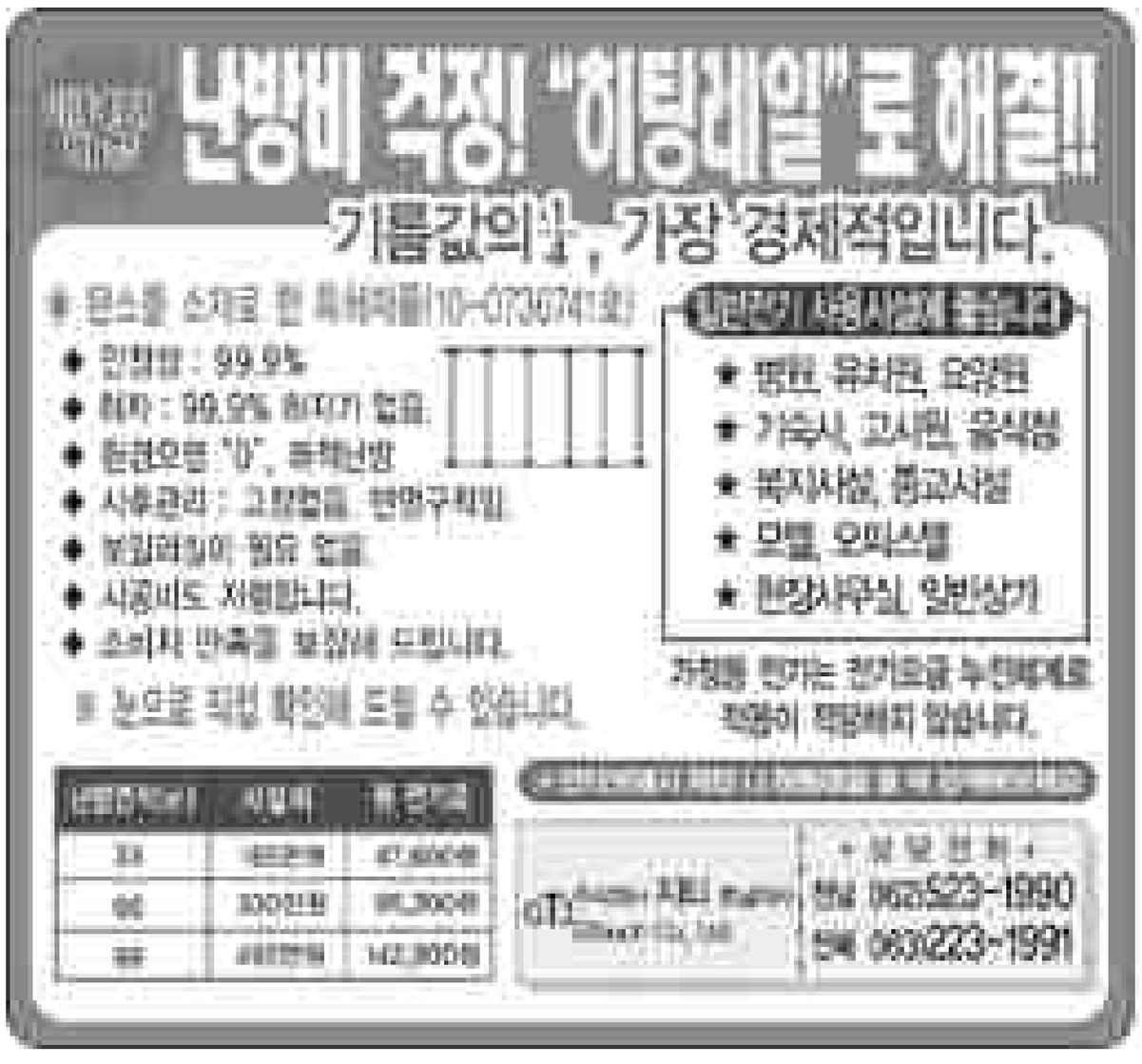
한미냉동식품㈜은 서울에 본사를 둔 냉동식품 유통업체로 주문자 생산에 의한 제품생산(OEM)을 통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대형마트와 단체급식회사에 냉동식품을 납품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유통기업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상의 사무국장에 박순형씨

박순형(57)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지원부장이 21일 신임 사무국장에 선임됐다.

광주일고와 전남대 법대를 나온 박 국장은 76년 광주상의에 들어와 진흥과장, 조사홍보부장, 기획조사팀장, 진흥팀장 등을 역임했다.

박 국장은 "직원의 화합을 바탕으로 광주상의가 종합경제단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